

## 6장 이사야의 환상과 소명

6장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다. 그 내용이 선지서들의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1장에 나오지 않고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본을 필사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근거가 없다. 그보다는 이사야가 받은 소명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는 여호와와 말씀을 전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1-5장의 서론적인 설명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서론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고 또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약속하였다(2:1-4; 4:2-6).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배경으로 하고서 이제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을 가르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경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6:13).

### 1. 이사야가 본 환상 (6:1-4)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주전 740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뵈면서 소명을 받았다. 웃시야 왕은 예돔을 정복하고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교만하게도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으로 침을 받은 왕이다.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왕좌에 앉으신 사실을 목도하였다.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셔 섬기며 찬송하고 있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천사들의 찬송이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거룩함의 내용은 여호와와 영광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는 헛된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은 우상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거룩함과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하셨다.

### 2. 이사야의 회개와 사죄 (6:5-7)

여호와와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달았다. “화로다, 나여!” 하고 고백하는데 이사야의 ‘화로다’ [오이]라는 말은 5장의 ‘화로다’ [호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천사들의 거룩한 찬송을 들을 때에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함을 고백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5장에 나오는 백성의 말이 부정한 것이었는데, 자기에게도 그러한 부정함이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때에 스랍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화저로 집어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었다. 여호와께서 제단의 숯불로 그를 정결케 하여 주신 것이다. 이 장면에는 제단으로 상징되는 대속과 숯불로 상징되는 고난의 시기가 담겨 있다.

### 3. 이사야가 받은 소명 (6:8-13)

사죄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섰으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이었다. 그 백성의 ‘마음’ 을 둔하게 하고 ‘귀’ 가 막히고 ‘눈’ 이 감기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눈’ 으로 보고 ‘귀’ 로 듣고 ‘마음’ 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신 것이었다(6:10).

예언자가 어느 때까지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여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거짓 평화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렇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전부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은 자의 십분의 일이 다시 이스

라엘을 재건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고난을 통하여서 정결케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스라엘이 종국에는 ‘남은 자’ 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먼저는 그루터기만 남을 정도로 철저히 심판을 받은 후에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 묵상과 실천:

##### 이사야의 회개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이사야의 소명 기사에서 예언자와 백성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에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셨다. 6장 마지막 절에서도 ‘남은 자’ 를 ‘거룩한 씨’ 라고 표현하여서 ‘거룩하신 여호와’ 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거룩한 씨’ 를 보존해 주실 것을 밝혔다. 초점은 남은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에게 맞추어진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고 자기의 죄와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셨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 후에 그들 가운데 거하실 뜻을 보이신 것이다.

이사야 개인의 경험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일은 이사야 개인의 체험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이사야는 역사를 두고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신 경영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이 있느냐의 여부가 이사야와 아하스의 근본적인 차이일 것이다.

#### 6장 익힘 문제

1.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1절)
2. 하나님을 모셔 선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송한 이유는 온 땅에 무엇이 충만하기 때문이었습니까? (3절)
3.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죄를 깨달았는데 특히 자신과 백성의 무엇이 부정하다고 하였습니까? (5절)
4.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은 무엇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6, 7절)
5.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꼬’ 말씀하시자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8절)
6.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 1)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 2) 이사야는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11, 12절)
7.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다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그분의 경영을 다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13절)